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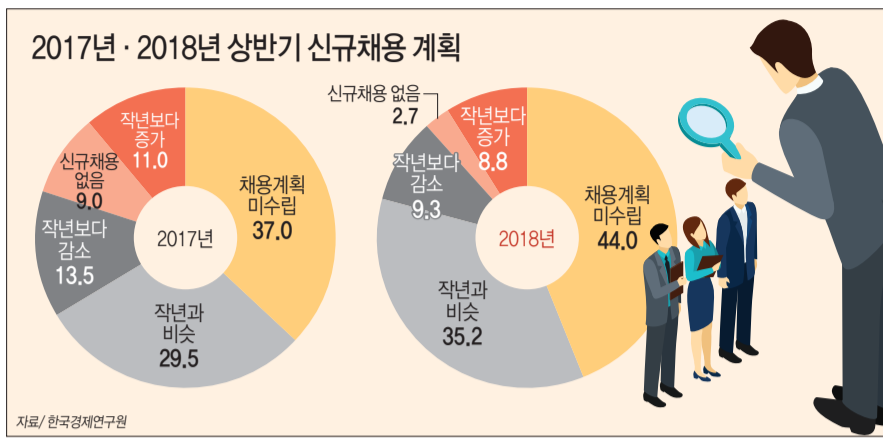
1분기 지나도록... 대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 채용 '미정'

미국발 금리인상·최저임금 상승 등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워' 25.9% 꼽아

올해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용 정책이 인위적인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와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82개 사 중 80개 사 44.0%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7%)보다 7.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12.0%는 작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한명도 뽑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8.8%(16개사)에 그쳤다. 지난해 11.0%(22개사)보다도 2.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올해 작년 상반기보다 채용을 줄이는 곳은 9.3%(17개사), 신규채용이 없는 곳은 2.7%(5개사)이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 내부 상황 어려움'(25.9%), '국내외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20.0%),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 등을 꼽았다. 결국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상승에 대

한 부담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외부적 경기 상황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들의 63.2%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강화'(47.8%),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42.9%),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유도'(20.9%),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12.1%)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이공계·남성 선호는 여전했다.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인

원 중 이공계 선발 비중은 평균 55.3%, 여성 비중은 평균 28.6%로 조사돼 올해 상반기 취업시장에서도 '이공계·남성' 선호가 여전한 나타났다.

대졸 신규채용시 블라인드 인터뷰 또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에 대해 34.6%(63개사)는 이미 도입했다고 답했고, 18.1%(33개사)는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한경연이 지나해 하반기에 실시한 동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24.9%가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도입했다고 답해 9.7%포인트가 증가했다.

블라인드 채용 기대효과에 대해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면접답변에 집중'(71.4%),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68.7%), '스펙위주 채용관행에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방식으로 변화'(52.7%)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롯데,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1150명 채용

신입 공채 800명·하계 인턴 350명
오늘부터 40개사 신입공채 모집 시작



롯데그룹은 20일부터 2018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및 하계 인턴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회사는 식품·관광·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제조, 금융 분야 등 40개사다.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800명과 하계 인턴 350명 등 1150명 규모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입 공채와 비슷한 규모다.

이번 신입 공채는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하계 인턴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롯데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는다. 신입공채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엘랩(L-TAB; 조직·직무 적합도 검사) → 면접전형> 순이며, 6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채용부터 백화점, 마트, 정보통신 등 일부 계열사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서류전형에 활용한다. AI는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어울리는 우수 인재인지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만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은 동시에, 우수인재 발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는 AI 시스템이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존 서류전형의 평가방법을 병행하고, AI의 심사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엘랩은 지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 전형으로 분리해, 4월 28일에 그룹 통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엘랩 이후 진행되는 면접전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에 모든 면접을 끝내는 '원스텝 면접' 기조를 유지해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엘랩과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는 전형결과 피드백을 이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홍 기자 parkiu7854@

100대 대기업, 직원 1인 평균급여 5400만원

SK이노, 평균 9300만원으로 1위
기아차, 직원 근속년수 제일 길어



100대 대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이 평균 9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근속년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아차로 평균 20.3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순위 상위 100대 대기업 중 최근 분기보고서(2017년 9월 기준)를 공개한 81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5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으로 직원 평균 급여액이 9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증권(9261만원), S-OIL(9031만원), SK텔레콤(8400만원), NH투자증권(8100만원), 네이버(7760만원), 미래에셋대우(7400만원), 삼성증권(7289만원), 한화케미칼(7007만원), 우리은행(7000만원)이 상위 10위에 들었다.

성별로 남성 직원의 1인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메리츠증권(1억854만원)이었고, 이어 SK이노베이션(1억200만원), NH투자증권(9500만원), S-OIL 순으로 높았다. 여직원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네이버(6758만원)였고, 이어 SK이노베이션(6500만원), SK텔레콤(63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원 평균 근속년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아차로 20.3년이었다. 이어 KT(20.2년) 포스코(19.7년) 현대자동차

(18.9년) 순으로 근속년수가 길었다. 특히 남직원 근속년수가 긴 기업은 KT(20.6년), 기아차(20.4년), 포스코(20.2년) 순이었고, 여직원 근속년수가 긴 기업은 KT&G(19.3년) 한화생명(18.1년), KT(17.8년)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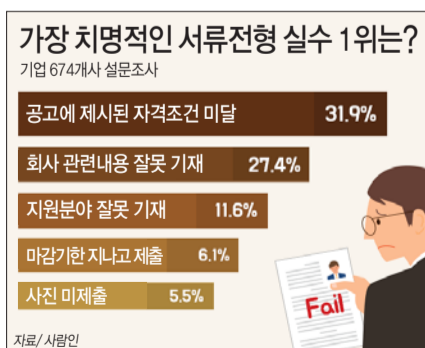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대기업으로는 현대제철(남직원 비율 97.3%), 기아차(97.1%), 한온시스템(97.0%), 대우조선해양(96.6%), 고려아연(96.4%) 순이었고, 반대로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은 롯데쇼핑(여직원 비율 68.7%), 아모레퍼시픽(68.6%), 신세계(67.8%), 코웨이(65.5%), 이마트(65.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 수는 삼성전자가 9만98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현대자동차(6만8194명), LG전자(3만7700명), 기아차(3만4752명), LG디스플레이(3만3242명), 이마트(2만7582명), 롯데쇼핑(2만6014명), KT(2만3632명), SK하이닉스(2만3278명), 한국전력(2만1392명)이 상위 10개사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hys@

탈락 부르는 서류... 치명적 실수 '자격 미달'

세부조건 확인않는 지원 구직자 多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 상반기 공채 첫 관문인 서류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서류전형에서 구직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19일 사람이 기업 674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격조건 미달'이 31.9%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전공이나 자격증 등 세부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이어 구직자들의 서류 실수는 '기업명 및 회사 관련 내용 잘못 기재'(27.4%), '지원분야잘못 기재'(11.6%), '마감기한 지나고 제출'(6.1%), '사진 미제출'(5.5%), '제출서류 미첨부'(4.3%), '이력서 중 일부 항목 누락'(4.3%), '지정된 제출양식 위반'(4.2%)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실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응답기업의 85.8%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위메프, 신입MD 30명 추가 공채

올해에만 신입MD 100명 채용 목표



위메프가 2분기 30명에 달하는 신입 MD 충원에 나선다.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선도할 핵심 인력으로 MD(상품기획자)를 꾸준히 발굴·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위메프는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품 MD 직군 신입 공개 채용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신입 및 관련경력 2년 이하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 위메프 채용공고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약 2주간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상품 MD 직군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의 입사 예정일은 5월 8일이다.며 3개월간 직무 교육 및 실무 멘토링 과정을 거쳐 각 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이커머스 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신규 인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만 신입 MD 1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1분기에는 목표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했다. 위메프는 예정된 2분기 공채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신입 MD 채

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해 공채로 입사한 신입 MD들이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연내 100명 이상의 신입 MD 공개 채용을 목표로 지속적인 인재 발굴과 육성을 진행,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위메프와 MD 직군에 관심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24일과 30일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위메프 채용설명회 달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하용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위메프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관심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취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선배 MD들이 들려주는 위메프와 MD 직무 이야기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